

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	<h1>보도자료</h1>	2016. 3. 26(토)	
		작 성 · 문 의	국무조정실 안전관리과 신강민 과장 / 김해철 경정 (Tel. 044-200-2346)
* 엠바고 : 3.26(토) 15시(행사 종료) 이후 사용			

접경지역 경계태세 및 주민대피시설 점검

- 황 총리 김포시 방문, 국민안전을 위한 지자체의 철저한 대비태세 당부
 - 북한 도발 대비, 접경지역 내 주민대피시설 조기 확충 노력
- 황교안 국무총리는 3월 26일(土), 경기도 김포시청과 주민대피시설을 잇달아 방문하여 최근 경계태세 강화에 따른 대비태세를 점검하였다.
- * (참석) 이성호 안전처차관, 양복완 경기도행정제2부지사, 유영록 김포시장 등
- 황 총리는 김포시장으로부터 김포시의 주민보호대책 등 안전관리 대비 현황 등을 보고 받고, 김포시가 수도권 지역임과 동시에 접경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해 경계와 주민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 하고 상황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.
- 이 자리에서 황 총리는 북한이 올해 초부터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한데 이어 최근에는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극단적인 도발 위협을 하고 있어 국민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이라며,
- 정부는 북한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며, 국민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.

- 특히, 황 총리는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고, 국가기반 시설을 비롯한 중요시설의 보안과 안전에 한 치의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하고,
 -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주민대피시설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할 것을 지시하였다.
- 또한, 국민들도 최근의 위기상황을 계기로, 자기 집 주변의 대피소 위치와 상황별 대처요령 등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.
- 이어 황 총리는 김포시 월곶면 소재 주민대피시설을 방문하여 냉·난방 시설 작동 여부, 생활필수품 확인 등 주민대피시설 시설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였다.
 - 황 총리는 정부는 북한의 포격 등 도발에 대비하여 접경지역 내 주민대피시설을 조기에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하고,
 - 새로 짓는 주민대피시설은 생활편의시설을 갖추어 주민들이 체류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.